

광주동물보호소 공간·인력 부족에 '신음'

올해 1천590여 마리 입소...수의사·실무자 태부족

위탁 운영 역부족 "직영화 등 체계적 관리 절실"

광주지역에서 유기 동물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광주동물보호소의 공간과 인력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다.

더욱이 위탁 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마저 사실상 운영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에서 광주동물보호소의 체계적인 운영 방안이 다시 설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광주동물보호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입소한 유기동물(개·고양이) 수는 1천590여마리로 해마다 증가(2016년 2천610마리, 2017년 3천669마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병들어 죽거나 안락사 당한 동물은 910마리로 입소한 유기 동물 중 57%인 것으로 집계됐다. 입양되거나 주인을 찾은 경우는 38%(614마리)에 그쳤다.

문제는 현재 광주동물보호소가 권장하는 상주 가능 숫자는 250마리지만, 현재 관리 동물은 410마리로 인력과 공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광주동물보호소의 경우 동물보호단체인 A단체가 올해 1월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파트타임으로 오전 진료만 보는 수의사는 1명,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실무자 6명이 전부다 보니 이곳에 들어오는 유기 동물을 체계적으로 돌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광주동물보호소를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위탁 운영해 온 지난 3년간 꾸준히 반복됐다.

앞서 지난 2001년 광주동물보호소는 유기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관리하며 입양 주선을 통한 동물 복지 향상을 골자로 문을 열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 민·관·학 협력체제, 전남대 동물

의학 연구소, 광주시수의사회, 전남대동물병원, 전남대 산학협력단 및 지자체의 협업으로 운영됐다. 입소한 유기동물들이 공고 이후에도 20여일의 계류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이 있었고, 2016년부터는 동물보호단체들이 직접 1년여의 계약기간으로 위탁운영을 맡게 됐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게 되다보니 계류기간인 최장 30여일을 넘겨 그 다음해로 이월 돼 관리되고 있는 유기동물이 평균 280여마리에 달했다.

이에 광주시는 해마다 예산을 투입해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등에 주력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유기동물 수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동물보호단체들도 부족한 예산을 자비로 부담하는 일이 허다해 운영 계약만료일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당장 2019년부터 위탁운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게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이들은 광주시 차원의 직영 운영으로 인력 보충 및 상주 수의사 채용, 유기동물수에 비례한 예산 확보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동물보호소는 가장 첫 번째로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해야하지만, 직영화가 되지 않으면 늘어나는 유기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더더욱 수 밖에 없다"며 "운영의 한계가 나타나다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들에게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광주시 생명농업과 지태경 주무관은 "늘어나는 입소 유기 동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방안



무등산수박 본격 출하 14일 광주 북구 금곡동 무등산수박 정보화마을 기숙 노지에서 재배농민들이 수확하는 무등산수박. 무등산수박(일명 푸랭이)을 수확하고 있다. 금곡동 무등산수박 정보화마을 직판장에서 15일부터 판매되며 8kg에 2만원, 16kg에 10만원, 20kg에 18만원이다. /김매리 기자 kki@kdaily.com

을 모색 중이다"며 "다만 시민들도 반려동물 등록제를 적극 활용해 더 이상 동물들이 유기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승지 기자 ohssji@kdaily.com

젓소고기 한우 생고기 둔갑 판매

전남 농관원, 축산물 판매업소 원산지표시위반 68곳 적발

최근 3년간 젓소 고기 1t 가량을 한우 생고기로 속여 판매한 광주 유명 생고기 식당 등 광주·전남지역 축산물 판매업소 68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농관원)은 14일 관내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취약업소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전남 농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인력 500명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유명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1천608곳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이 중 68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 업소 중 43개 업소는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구의 한 유명 생고기 식당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1t에 달하는 국내산젓소고기를 한우 생고기라고 속여 8천800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의 한 정육점에서는 캐나다산 돼지고기 냉장 삼겹살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반으로 접어 진열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산 쇠고기와 국내산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7곳도 적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6곳)가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1곳, 쇠고기 8곳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소명과 위치, 적발 내용 등 구체적인 단속결과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원준 기자 choijun@kdaily.com

전남경찰, 사이버 성폭력 100일 특별단속

전남지방경찰청이 최근 불법촬영물 유통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사이버성폭력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위한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1월 20일까지 불법촬영물 유통구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불법촬영물·음란물 등의 유통플랫폼 역할을 해 온 웹하드, 음란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주력한다. 특히 지방경찰청 2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이버성

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유통·재유통·금품갈취·조장행위 등 단속 및 범죄수익 추적·환수, 불법카메라 촬영 단속, 피해자보호를 함께 진행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공조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차단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하고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승지 기자 ohssji@kdaily.com

생활고 시달린 60대 강도로 돌변

이들간 굶주린 60대가 급기야 강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복권방 주인을 흥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께 광주 북구 한 복권방에서 주인 B(72)씨를 흥기로 위협해 현금 11만4천원을 빼앗아 달

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택에서 가져온 흥기를 들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보호사였던 A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일을 하지 못했고, 이틀간 굶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왜소한 체격으로 복권방 다른 손님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임후성 기자 uyear@kdaily.com

"서비스 플리즈"

○...노래 시간 등 서비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 여성업주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폭행 혐의로 경찰서행.

○...1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박모(52)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께 북

구 운암동 A(34·여)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A씨의 손뼉을 비틀고 머리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박씨가 서비스와 관련해 업주에게 휴대말은 느낌이 들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다"고 따끔히 호통.

/임후성 기자 uyear@kdaily.com

폭염 속 '수난·물놀이 사고' 주의보

전남 곳곳서 잇따라... "안전수칙 준수해야"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전남지역에 수난사고 및 물놀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14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45분께 고흥군 도양읍 한 호텔 앞 해상에서 A(35)씨가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다.

술에 취한 A씨가 바다에 빠지자 인근에 있던 낚시꾼이 경찰에 신고했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보내 8분여 만에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에 이송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9시21분께 여수시 종화동 하멜 전시관 앞에서는 B(54·여)씨가 차에 타려다 발을 헛디뎈 바다에 빠졌으나 시민들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물놀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12시31분께 광양시 봉강면 봉강 계곡에서 C(48)씨가 물에 빠졌다. 당시 주변에서 물놀이하던 사람들

이 C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결국 숨졌다.

지난 2일에는 완도 앞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실종된 고교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완도군 금일읍 한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실종된 D(19)군을 발견했다.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D군은 구조대가 발견했을 당시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전남 오후 3시38분께 해당 바닷가에서 D군이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져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구조대와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상과 수중 수색을 벌였다.

완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D군은 친구들과 물놀이 중 실종됐다.

이에 따라 여름철이 끝나기 전까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소방당국은 당부했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과 피서객들이 물이 있는 곳을 찾고 있다"며 "특히 눈으로 보기에 수심이 얕아 보여도 불규칙한 바닥으로 수심을 분간하기 어려운 만큼 구명조끼 등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후성 기자 uyear@kdaily.com

http://www.kukje9.co.kr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70-4312-5665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야외 결혼식
- 칠순잔치
- 체육대회
- 야유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